

## [따블뉴스]“평화 가득한 세상을 담고 싶어요”

파워블로거 인터뷰 - '에이레네 세상이야기' 김광모씨

2010년 01월 13일 (수)

충청투데이

‘에이레네 세상 이야기’

(<http://eirene88world.tistory.com>)를 운영하는 김광모 씨는 지난 2007년부터 대전시티즌 축구 경기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부터 그는 인터넷 스포츠 신문인 엑스포츠뉴스 기자와 대전 시티즌 명예기자로 활동합니다. 에이레네님의 블로그에 가면 축구경기의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축구 사진만 찍는 것은 아닙니다. 야생화와 풍경사진도 찍습니다. 요즘엔 가족과 함께 하는 볼링에 빠져있습니다. 볼링을 하며 아내와 자녀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에이레네 님은 블로그를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창조적 순환’이라고 정의합니다. 평화로운 조화를 꿈꾸는 블로거 에이레네님을 소개합니다.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친다는데?

“저는 섬진강을 수영장으로, 지리산을 뒷동산으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고교 졸업 전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신약학, 특히 복음서에 대한 해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닉네임을 '에이레네'라 지은 이유는?

“에이레네는 헬라어·그리스어를 우리말로 음역한 것으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필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그런 세상이 되도록 일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에이레네 세상 이야기'는 어떤 블로그인가요?

“제 블로그엔 네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네 기둥은 ‘개인생활, 축구사진, 야생화사진, 풍경사진’입니다. 제가 보고 느끼며 경험한 에이레네(평화) 가득한 세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루 평균 블로그 운영에 투자하는 시간은?



“글쓰기 보다 사진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편입니다. 축구경기, 야생화나 풍경사진을 포스팅을 하려면 먼저 고된 사진작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메모리 카드에 담은 사진의 양에 따라 투자하는 시간이 달라지니, 물리적인 시간을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학기 중보다는 방학 때 블로그 운영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 △블로그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처음엔 카페나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 미니홈피를 만들었고, 보다 광활한 사이버 공간에 기숙하기 위해 블로그에 정착했습니다. 무엇보다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생각과 사진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어 블로그 운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 △블로그를 운영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우선 충청투데이 따블뉴스 기자단의 초기 멤버로 활동하며, 온라인만이 아니라 지면에도 기사화된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갑천 수상뮤지컬' 공연 사진을 포스팅했는데, 공연을 주최한 대전 서구청에서 '갑천사진전'에 출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참여한 일입니다.”

#### △야생화엔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나요?

“2006년 여름 중국 연변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잠시 시간을 내 백두산을 여행했습니다. 천지 등산길 주변에, 특히 소천지에서 용문봉을 오르는 등산로는 그야말로 천상화원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야생화 사진을 본격적으로 찍으며, 사진 공부를 재밌게 했습니다.”

#### △충청지역의 아름다운 명소 세 곳을 뽑는다면?

“일출은 옥천 용암사입니다. 가을 운해 위로 얼굴을 내미는 태양을 맞는 작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를 기준으로 한 달 전과 후에 공주 청벽산에서 본 금강 일몰도 좋습니다. 금빛으로 변하는 금강의 매력에 빠져, 2008년엔 무려 25차례나 출사했던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식장산입니다. 특히 일몰 전후 30분간인 매직아워엔 대전시가지 모습이 가히 환상적입니다.”

#### △블로거들에게 한 마디?

“1인 미디어의 주체로 평가 받는 블로거로서, 창의적인 내용을 산출해 당당하게 저작권을 주장하며, 속어나 비어가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글로 독자에게 편안한 쉼과 유익을 주는 블로거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 △에이레네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블로그를 하면서부터 더 많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진작가·스포츠 프리랜서·프로볼러 등. 그러나 이런 꿈이 신약학자로서의 꿈보다 결코 우선하지 않습니다. 신약성서에 대한 학제적 연구, 곧 서사론과 수사학에 기댄 문학적 연구에 집중해 강의하고 저술하고 싶습니다. 물론 에이레네 세상을 꿈꾸면서요.” 최봄2. 더 자세한 내용은 <http://kake0101.tistory.com>

품인쇄하기

창닫기